

‘Epic Cycle’ 이라는 용어의 사용 사례 Case The use of the term 'Epic Cycle'

이종훈(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차 례

1. 서론
2. 본론
 - 2.1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의 이상섭과 천병희의 주석
 - 2.2 호라티우스의 「시학」에서의 ‘cyclicus olim’
 - 2.3 지암비스타 비코의 ‘cyclical poet’와 기타 연구
 - 2.4 마블 유니버스
3. 결론

■ keyword : | epic cycle | cyclicus olim | 서사시권 | 서사시환 | cyclical poet |

1. 서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서사시권’ 혹은 ‘서사시환’으로 번역되는 ‘epic cycle’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실제로 ‘epic cycle’은 몇몇 번역서의 주석에서나 잠깐 언급되어있거나, 해외의 자료들에서나 볼 수 있는 용어이다. 이렇다 할 개념에 대한 이해나 정의도 없는 이러한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epic cycle’을 주제로 잡고 논의하는 일은 이만저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논의하는 일은 많은 허점을 보이고 치밀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의 ‘epic cycle’적인 현상들을 논하고자하는 이유는 문화와 문화콘텐츠의 비중이 나날이 커가고 있고, 그 속에 ‘이야기’가 주요한 테마로 놓여있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epic cycle’의 잠재적인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epic cycle’에 대한 시론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epic cycle’이 무엇을 뜻하는 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겨우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여기서 크건 작건 ‘epic cycle’에 대한 객관적 개념과 현대적 의미를 결론적으로 매듭짓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 ‘epic cycle’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필요성 정도를 제기하는 수준의 글이 될 수 있다면, 출발선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는가, 차근차근 그 출발선을 넘어보고자 한다. ‘epic cycle’은 완전히

생경한 용어가 아니라 산발적으로나마 몇몇 자료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본 논의는 이 용어를 범벅하게나마 먼저 살피는 일로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앞으로의 경주에서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성실하게 달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본론

2.1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의 이상섭과 천병희의 주석

먼저 다소 생소하기까지 한 ‘epic cycle’이라는 용어를 어디에서 볼 수 있고, 무슨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용어에 천착하는 태도가 큰 이야기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부수적인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이 본문을 옮기고 그 본문의 ‘epic cycle’을 ‘서사적 사이클’로 옮기면서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다.

<본문>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호메로스가 그 전쟁 중에서 통일된 한 부분만을 선택하였고 뿐만 아니라 합선의 목록

같은 많은 에피소드를 사용하여 시를 다양하게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퀴프리아>와 <작은 일리아스> 같은 작품들의 작가들은 한 개인이나 한 시대나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는 큰 사실 전부를 모두 다룬다. 그런 까닭에 <일리아스>나 <오뒷세이아>는 각각 한두 비극의 소재만을 제공할 뿐인 데 반하여 <퀴프리아>는 여러 비극의 모체가 되었고 <작은 일리아스>는 <무기수여> <필록테테스> <네오프톨레모스> <에우뤼펠로스> <거지> <라카니아 여자> <일리온 공략> <귀향> <시논> <트로야 여인들> 등 열 편의 비극을 낳았다.”[1]

<주석>

“6. ... <작은 일리아스>에서 이처럼 여러 비극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작품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여러 작품에 쓰일 '소재' 구실밖에 못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된 모든 이야기의 집합체로서의 장편 시는 호메로스 식의 서사시는 아니나 서사적 사이클 epic cycle이라 하는 독특한 장르를 형성하며 유럽의 중세에도 크게 유행했다. 대표적인 것은 아서 왕과 그의 기사들의 무용담을 집합한 아서 사이클 Arthurian Cycle이다. 이런 장르는 실상 시작도 끝도 없을 수 있고 언제나 첨가가 가능하기도 하다. 또한 르네상스 때 유행한 로망스 romance도 비슷한 장르이다. 이들은 통일성보다 산만한 포괄성을 목적으로 하였다.”[1]

그런데 천병희가 번역한 '시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같은 부분에 대하여 조금 다른 번역과 주석을 보여주고 있다.

<분문>

“그러므로 그(호메로스)는 전체에서 한 부분만 취하고, 그 외 많은 사건은 삽화로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함선 목록'이나 다른 사건은 이야기의 단조로움을 덜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시인들은 한 사람 또는 한 시기를 취급한다지만, 그들이 취급하는 행위는 하나라 하더라도 그 속에 여러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컨대 <퀴프리아>와 <소일리아스>의 작가들의 경우가 그렇다. 그 결과 <일리아스>나 <오뒷세이아>로부터는 각각 한 편, 또는 많아야 두 편의 비극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비하여 <퀴프리아>로부터는 다수의 비극이, 그리고 <소일리아스>로부터는 8편 이상의 비극이 만

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무구 재판>, <필록테테스>, <네오프톨레모스>, <에우뤼펠로스>, <걸인>, <오뒷세우스>, <라케다이몬의 여인들>, <일리오스의 함락>, <출범>, <시논> 및 <트로이아의 여인>들이 그것이다.”[2]

<주석>

“6.7. <퀴프리아 Kypria>와 <소일리아스 Ilias mikra>는 둘 다 이른바 '서사시권(epikos kyklos)'에 속하는 시들로서 현재 남아있지 않다. 스타시노스(stasinós) 작(作)이라고 하는 <퀴프리아>는 파리스의 심판으로부터 그리스 군이 트로이아 도착까지를 취급했다고 하며, 아르크티노스(Arktinos) 작으로 알려져있는 <소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의 사후 그의 무구를 둘러싸고 아이아스와 오뒷세우스가 서로 다투던 일부터 트로이아의 함락 후 그리스군의 출범까지를 취급했다고 한다.”[2]

이와 같이 이상섭과 천병희는 '시학 23장'의 번역과 주석에서 같은 문구를 두고, 이상섭은 '서사적 사이클', 천병희는 '서사시권'이라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천병희의 경우에는 같은 책에 실려 있는 <호라티우스의 시학>에서 '서사시권의 시인들'이라고 '서사시권'을 다시 언급한다. <호라티우스의 시학>은 이상섭도 같은 책에 번역하고 있는데, 그는 같은 부분을 '서사 시인들'이라고 번역해 놓았다. 이러한 차이는 이상섭과 천병희의 두 책이 모두 번역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차이이고 원전을 살펴보기 전에는 어느 한 사람이 오류를 범했다고 결론지을 수 없는 일이다. 천병희는 다른 책에서 “서사시권이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것을 제외한 다른 서사시들에 대한 총칭”이라고 앞서의 주석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천병희의 설명은 앞서 살펴본 이상섭의 주석과는 그 개념이 많이 틀리다. 천병희의 정의는 그리스의 서사시들에 한정하여 '서사시권'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상섭은 중세 유럽의 '아서 사이클'과 '로망스'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서사적 사이클'의 범주와 대상을 천병희의 그것과는 다르게 아주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큰 차이로 인해서 천병희의 정의와 이상섭의 이해를 단순히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어선택에서 기인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천병희와 이상섭의 설명은 같은 원전을 바

탕으로 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2 호라티우스의 「시학」에서의 ‘cyclicus olim’

따라서 본래 무엇을 ‘서사적 사이클’이나 ‘서사시권’이라고 번역한 것인지 원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헬라어로 쓰였고, 본문에 직접 ‘epic cycle’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두 번역자가 주석으로 달아놓은 내용이므로 나중에 미루고 먼저 본문에 ‘서사적 시인들’ 혹은 ‘서사 시인들’이 언급되어 있는 호라티우스의 시학을 살펴보기로 하자.

호라티우스의 시학은 라틴어로 쓰였기 때문에 바로 라틴어 원전을 살피는 작업이 다소 이해의 과정을 흐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잠시 미루고, 먼저, 국어가 아닌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문에 직접 ‘서사시권의 시인들(천병희)’이나 ‘서사 시인들(이상섭)’이라고 언급된 호라티우스의 <시학>에서 해당부분을 영어로는 ‘the bard of everlasting strain’이나 ‘the rude ballad-monger’s chaunt of old’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역시 영어로의 번역도 번역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역시 원전이 아니라 번역본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전을 보기 전에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각각의 영역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the bard of everlasting strain’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움직임의 시인’ 쪽으로 번역할 수 있고, ‘the rude ballad-monger’s chaunt of old’는 ‘천한 노래쟁이의 오래된 노래’ 정도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영역에서도 여전히 본래의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영어의 경우 어느 정도 일정한 통일된 양상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라틴어 원전을 살펴보자.

위에서 번역자마다 다르게 표현한 구문은 라틴어로 된 원전에는 ‘scriptor cyclicus olim’라고 쓰여 있다. ‘scriptor’는 영어로는 그대로 ‘scriptor’, 우리말로로는 ‘작가’로 번역할 수 있다. ‘cyclicus’는 영어로 ‘circuitous’, 우리말로로는 ‘에워쌌’, ‘두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olim’은 ‘오랫동안’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종합하면, ‘scriptor cyclicus olim’은 우리말로 ‘오랫동안 둘러싼 작가’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전의 파악으로도 아직 ‘서사시권’에 대한 정확한 지칭대상을 찾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cyclicus’가 천병희에 와서는 ‘서사시권’,

이상섭에서는 ‘서사’로 번역되는 것인데, 아직 ‘에워쌌’, ‘두름’이 원이나 순환 정도의 의미라고 추측만 가능할 뿐, 명시적인 어떠한 추측은 아직도 어렵다. 다만, 라틴어 원전에서 ‘scriptor cyclicus’를 확인함으로써 ‘서사시권’의 ‘권’과 ‘서사적 사이클’의 ‘사이클’이 원전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3 지암비스타 비코의 ‘cyclical poet’와 기타 연구

본래의 뜻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른 설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잠바티스타 비코는 <New Science>에서 좀 더 본래의 의미에 가까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호메로스의 작품을 읊은 음유시인들처럼, 신의 기원부터 율리시스의 이타카로의 귀환까지의 모든 그리스의 신화적인 역사를 보호한 사람들은 보통 *cyclic poets*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호칭이 원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kyklos*에서 따온 것에서 보다시피, 그 원형의 시인들은 휴일에 보통 사람들을 동그랗게 모아놓고 신화를 노래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서민들임에 틀림없다. 헤시오도스는 그의 시학(*Art of History*)에서, 이러한 원형을 정확하게 *velim patulumque orbem*, 즉 속되고 천하고 넓은 원이라고 쓰고 있다. …(중략)… 헤시오도스는 시학(*Art of History*)에서 거리 한 쪽에서 노래하는, 혹은 축제의 시인을 뜻하는 용어로 ‘*cyclical po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시인들을 대개 *kyklioi* 와 *enkyklioi* 즉, *cyclic*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작품의 모음은 순환적 서사시(*cyclic epic*), 즉 *kyklos epikos*, *kyklika epe*, *kylikya epe*, *poiema enkyklikon*으로 불렀고 때로는 수식어구 없이 순환(*cycle*) 즉 *kyklos* 라고 불렀다.”[3]

비코가 말하는 ‘cyclical poet’은 예전 우리의 전기수가 장날이나 잔치에 사람들은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던 풍경을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을 동그랗게 모아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람이 ‘cyclical poet’이고 이들이 들려주던 이야기들을 ‘cyclic epic’이라고 부르고 이를 그리스어로는 ‘*kyklos epikos*’라고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과 관련한 두가지 개념을 읽을 수 있다. 작가를 가리키는 ‘cyclical poet’에서의 ‘cyclical’은 아마도 사람들 ‘동그랗게’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청중들이 화자를 ‘에워싼

모양'을 뜻하고 'cyclic epic'에서의 'cyclic'은 여러 이야기 기꾼들이 하는 '여러 이야기가 이야기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있고 등장인물이나 사건들이 순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비코의 글을 토대로 호라티우스의 <시학>의 두 번역본 - 천병희의 번역과 이상섭의 번역-을 정리해보면, 천병희의 '서사시권 시인들'은 'cyclic epic'에 중심을 두고 이해하는 번역이고 이상섭의 '서사 시인들'은 'cyclical poet'에 중심을 둔 번역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의 두 사람의 주석은 모두 'cyclic epic'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의 두 사람의 주석이 모두 'cyclic epic'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주석이 같은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앞에서 밝힌 대로 주석의 내용이 천병희의 경우 그리스의 이야기 기들에 한정하고 있고, 이상섭의 경우에는 그 폭이 매우 넓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금 논의의 폭을 넓혀 다른 연구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더 'epic cycle'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epic cycle'의 개념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 연구사례가 있다.

신윤곤은 그의 박사논문에서 불가리아의 작가 요르단 요브코프의 <스타라플라니나의 전설>을 '현재까지도 불가리아의 산문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는 단편의 사이클화'를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소개하고 있다.[4] 그러면서 이 작품이 '10개의 단편은 각각 완벽한 체계를 갖는 전체 이면서 동시에, 동일한 파토스, 동일한 서사구조, 동일한 주제로 하나의 작품집 형성에 기여하는 부분이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윤곤의 글에서 볼 수 있는 사이클화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여러 단편이 모여 새로운 이야기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순환적 이야기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비코가 말한 'cyclic epic'과 거의 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마블유니버스

이러한 'epic cycle'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 'epic cycle'의 현상들을 살펴보자. 현대적 'epic cycle'적인 현상들은 문화보다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에서 더욱 쉽게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문화콘텐츠에서의 'epic cycle'은 마블코믹스의 예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인 현대적 'epic cycle'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마블코믹스는 다양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을 통해서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엔터테인먼트회사이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캐릭터는 배트맨, 엑스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헐크 등이 있다. 헐크를 주인공으로 하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는 '아이언맨'이 출연하여 마블코믹스의 캐릭터들의 잠재력을 새롭게 부각시킨 일이 있었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마블의 영화에서 헐크와 아이언맨이 함께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마블의 다양한 캐릭터들은 마블사의 출판만화 안에서 다양한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마블 유니버스에서는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마블엔터테인먼트의 광고 중의 한 장면이다.



▶▶ 그림 1. 마블어드벤처 광고의 한 장면

이 광고에는 스파이더맨이 악당을 물리치다가 헐크와 아이언맨의 도움을 받아 함께 악당을 물리친다는 줄거리로 되어있다. 헐크나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이 별개의 이야기의 주인공 캐릭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광고가 특별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의 그림을 보면 이 광고에 등장하는 3명의 캐릭터의 관계가 별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난 캐릭터들간의 관계에서 보듯이 헐크와 아이언맨, 스파이더맨의 관계는 이 마블유니버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마블유니버스를 파악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우주가 문화의 시대에 '문화콘텐츠'의 힘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만들어 놓는 세상이 Epic Cycle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여기에서 더욱 명확한 'epic cycle'의 개념을 파악하는 일은 다음에 별도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다양한 연구들에서 천병희와 같이 그리스의 서사시들만으로 'epic cycle'을 설명하지 않고 이상섭과 같이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의 모음을 'epic cycle'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았고 더 이상의 용어에 대한 천착은 짧은 시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소설과 만화, 애니메이션, 최근에는 웹툰까지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이야기들이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로 생성되고 있다. 현대의 문화콘텐츠산업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변용과 변주, 파생과 발산의 중심에는 스토리, 즉 이야기가 놓여 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문화콘텐츠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긴 역사와 함께 해온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주요한 줄기가 될 수 있는 'Epic Cycle'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1] 이상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연구』, 문학과지성사, 2002
- [2] 천병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문예출판사, 2002
- [3] Giambattista Vico, *New Science*, 1744, tr. Divid Marsh, Penguin Books, 2000.
- [4] 신윤곤, 『Старопланински легенди' на Ѓ Љовков текст уален и структурален прочит』, Sofiiski Universitet 'Sveti Kliment Ohridsky', 박사학위논문, 1998

저자 소개

● 이 종 훈 (Jong-Hoon Lee)



- 2000년 8월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미술학사)
- 2009년 8월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문화예술학석사)
- 2011년 8월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문화예술학박사)
- 2005년 3월 ~ 2009년 2월 : 호남대학교 다매

체영상학과 전임강사

- 2010년 8월 ~ 현재 :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조교수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영상디자인, 스토리텔링